

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배경 및 전망

2015. 8.

BNK금융경영연구소

(작성: 백충기 과장, 김민준 대리)

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급락

- 중국 인민은행은 8월 11일 이후 사흘간 미달러 대비 기준환율을 4.7%(1.9%, 1.6%, 1.1%) 상향조정
 - 미달러당 6.1162위안(8.10일) → 6.4010위안(8.13일)
 - 위안화 시장환율도 같은기간중 3.0% 상승*
 - * 미달러당 6.2097위안(8.10일) → 6.3989위안(8.13일)
 - 올해들어 시장환율은 기준환율에 비해 약 1.5%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기준환율과 시장환율간 격차가 축소되고 8.13일에는 기준환율이 오히려 시장환율 보다 0.03% 낮게 형성되었음
- 한편 8월 14일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일대비 0.05% 낮은 6.3975위안으로 고시되었으며 시장환율은 6.3918위안으로 형성되어 기준환율과 시장환율간 격차가 거의 없어짐

평가절하에 대한 시장 평가

- 인민은행은 시장환율과의 격차 및 위안화 가치 고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(8.11)
 - 기준환율은 전일 시장환율 중가에 근접하게 결정하고 인민은행 재량을 상당부분 줄여 시장환율과의 격차를 축소

□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 및 인민은행의 재량축소에 의한 위안화 SDR 통화 바스켓* 편입 추진을 이번 조정의 실질적 배경으로 평가

* SDR(Special Drawing Rights, 특별인출권)은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때 담보없이 필요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. 현재 SDR 통화바스켓은 유로화, 파운드화, 엔화, 달러화로 구성

- 중국경제는 금년 들어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

* FT(8.11) 및 Wall Street Journal(8.12)은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및 수출부진을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봄

- 미달러화에 대해 엔화, 유로화 및 주요 신흥시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안화는 지난 1년간 강세를 보임*

* BIS(7.15일)에 따르면 2014.6월~2015.6월중 위안화 실질실효 환율은 13.5% 절상

- IMF는 지난 8월 4일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 검토에 있어 친시장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, 8월 12일에는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격차 축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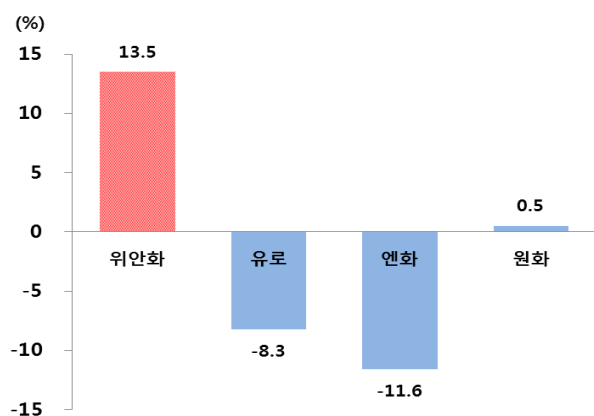
중국 실물지표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 1~6월
실질GDP ¹⁾	7.7	7.4	7.0
고정자산투자 ²⁾³⁾	19.7	15.0	11.4
소매판매 ²⁾	13.1	12.0	14.0
수출 ²⁾⁴⁾	7.9	6.0	-0.8
수입 ²⁾⁴⁾	7.3	0.5	-14.7

주 : 1) 2015년은 1/4분기와 2/4분기 평균

2) 명목기준 3) 누계기준 4) 2015년은 1~7월중

주요국 실질실효환율 절상/절하



주 : 1) 2014년 6월~2015년 6월중

2) (+)는 절상, (-)는 절하

자료 : BIS(2015.7.15)

향후 전망

- 중국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보다는 경기상황에 맞추어 환율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
 -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일본, 유로,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위안화 강세정책을 추진해 왔음
-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안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 고평가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
 - 도이치뱅크(8.12)는 위안화가 약 10% 고평가 상태이므로 위안화의 10% 절하가 합리적인 수준(reasonable target)이라고 밝힘
 - 크레딧 스위스(8.12)는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 수준을 감안하여 5~10% 정도의 하락을 예상
- ☞ 중국의 성장둔화가 세계경제 수요부진에 대한 수출감소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안화 약세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따라서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의 수요회복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권 산업의 경우 경쟁리스크 심화, 대중국 수출품목의 단가인하 압력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